

주 베트남 한국문화원 특정감사 결과보고

가. 감사개요

■ 감사기간 : 2012. 6. 13. ~ 6. 21.

■ 감 사 반 : 감사담당관 외 2명(실지감사)

■ 감사내용

○ 2009년~2012년 현재까지 기관 및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

나. 감사결과

(단위: 건)

합 계			신분상 조치		재정상 조치		행정상 조치				현지 조치	모범 사례
							주의	시정	개선	통보 등		
건수	금액	인원	건수	인원	건수	금액	건수	건수	건수	건수	건수	건수
6							2	-	-	2	1	1

※ 첨부서류 : 감사처분 요구내용 1부.

감사처분 요구내용

(주 베트남 한국문화원)

연번	지 적 내 용	조 치 사 항
1	<p>○ '베트남 결혼이주여성 교육 관련 경비 집행 부적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문화원에서는 시설대관에 대한 규정도 없이 KOCUN(사단법인 유엔인권정책센터)에 영화관 및 사무실 일부를 대관, 시설사용료로 2010년부터 3년간 11,600달러를 받아 교육장 환경개선 및 교육기자재 구입비용으로 지출 - 지급받은 사용료는 「국고금 관리법」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하는데도 세입조치를 하지 않고 직접 사용하여 관련 법령을 위반 	<p>○ 기관주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시설사용에 대한 대관규정 제정, 그에 따라 사용료 징수, 세입조치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바람
2	<p>○ 세종학당(한국어강좌) 회계관리 부적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베트남 문화원 세종학당은 2007. 3월 개설 이래 2007년 4,325천 원, 2008년 6,730천 원, 2009년 6,735천원, 2010년 10,560천 원, 2011년 13,110천 원의 수입을 기록하는 등 규모가 확대되고 있음 - 세종학당의 수입·지출은 국고 예산과는 성격이 다르지만,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만큼 그 회계절차는 국고예산에 준해야 하는데, 공문기안이나 원장의 결재 없이 회계가 이뤄지고 있으며, - 국고 지출 영수증의 보관은, 「계산증명규칙」에 따라 편철 방식으로 하여야 하는데, 지출 증빙 영수증을 규정에 따라 보관하지 않고 있고, 4건 79,295원에 해당하는 영수증은 없는 상태 - 매년 수입과 지출에 대한 결산을 한 후, 수강료 책정 등 향후 운영 계획을 수립,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 	<p>○ 기관주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세종학당의 수입·지출을 철저히 관리하고, 관련 규정을 준수하기 바람
3	<p>○ 베트남 문화원 실무인력 보강 필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베트남 문화원은 '06.11.18. 개원 이래 우리 부 소속 공무원 1명이 주재관으로 파견되어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, 원장 이외 근무 직원은 총 8명임(모두 현지인) - 원장 혼자서 대외활동, 사업추진 등 기관장 업무와 예산 회계, 행정 등 실무업무를 수행하고 있어, 업무부담 가중, 대외 활동 제약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, 실무업무 담당 공무원 파견 필요 	<p>○ 통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베트남 문화원은 예산확보 등을 통해 문화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조치 강구 - 국제문화과는 신규로 부임하는 문화원장에 대한 회계 교육을 강화하고, 문화원 주재관 등 인력을 증원하는 방안 강구

연번	지 적 내 용	조 치 사 항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타 재외문화원은 최소 1명 이상의 한국인 직원이 있으나, 베트남 문화원은 모두 현지인으로 구성되어 있고, 문화원 자체예산 부족 등으로 현지 한국인을 채용하기 어려워 행정처리가 원활하지 않음 - 문서정리, 물품관리 등 행정이 부실하고, 재외 문화원 예산 회계프로그램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, 원장의 장기 부재 시에는 업무대행자가 없어 문화원 운영이 사실상 중단되는 등 기본적 행정처리에 문제가 있음 	
4	<p>○ 한국 - 베트남 양국어 동화책 보급사업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한국-베트남 가족 2세가 양국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고, 자기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기 위해, 한국과 베트남의 전래 동화를 선별, 양국어로 제작된 도서를 발간·보급함 - 2010년에 ‘두형제와 별나무’, 2011년에 ‘소가 된 게으름뱅이’, 2012년에 ‘The Sun and the Moon’을 발간하여 베트남 내 전국 10개 한국어과 대학과 63개 성(城)급 도서관, 한국-베트남 가족, 문화원의 사전 교육 프로그램 참석자들에게 무료로 보급하였음 - 한국-베트남 동화책 발간·보급사업은 양국의 부모와 자녀가 책을 통하여 서로 소통함으로써 한국-베트남 양국의 문화를 쉽고 빠르게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음 	<p>○ 통보(모범사례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제문화과는 모범사례를 널리 알리고 해당 문화원에 대해서는 표창검토하고, - 문화여가정책과는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 국내 다문화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
5	<p>○ 한국관광공사 베트남지사 운영 개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임 지사장과 현 차장과의 불화에 이어 현 지사장과도 업무처리 등에 있어 내부 소통에 문제가 있음 - 지사가 개소·운영된 지 1년이 경과되었는데도 조직이 안정되지 않고 있어 한국관광 홍보 및 관광객 유치에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 - 현지 한국기업과의 협력과, 대사관 및 한국문화원 등 유관기관과의 공동 홍보활동이 필요한데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지 못해 관광객 유치 및 한류확산에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 	<p>○ 통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한국관광공사는 인사문제를 조속히 처리하고 지사운영을 정상화하여, 협력관계 강화 - 관광정책과는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의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것
6	<p>○ 물품 등 자료관리 부적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내구성 있는 책상, 의자 등의 품목은 물품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나 소모품으로 분류하여 미등재하였고, 베트남 작가로부터 기증받은 미술품 10여점을 방치하여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음 	<p>○ 현지시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직원에 대한 교육을 통해 물품, 도서 등 자료와 홍보물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

연번	지 적 내 용	조 치 사 항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또한 도서관 공간 부족의 이유로 국내단체로부터 기증받은 학술도서(200여권)을 도서관에 비치하지 않고 창고에 보관, DVD/CD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해 일부 분실한 경우도 발생 - 문화원 자체 홍보물 및 국내에서 보내온 홍보물의 홍보기간이 지났는데도 게시판에 그대로 방치하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음 	